

서울 선거공약 현실성 필요하다

중앙대자본 한쪽에 매미처럼 붙어있는 '여론'에는 2학기 들어 생긴이래로 투명한 여론만이 있을뿐이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학생회 사무실이 건물과 외곽에 일반 학생은 발을 들여 놓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있다. 학생회가 학생에게 소외 받는다면 자치기구로서의 불적조건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는 학생회의 존재만이라도 오히려 현재 대학의 관습을 대변하는 것이라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는 이르다. 이 문제는 자치기구의 주체와 객체 모두의 과제가지만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학생회 공약의 많은 부분이 일반학생들의 정점이 되는 것은 회의 조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보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복지문제와 우리학교의 교육체제 확립의 민주화일 것이다. 복지문제를 중심으로 공약의 내용과 그 이행정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학교의 누적된 문제인 공간문제와 학원내 민주적인 제도 및 행정일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3월초부터 일제되는 등록금 동결투쟁, 대학자치협의의 구상들의 학원내 주화투쟁을 벌이는 것은 이것이 결코 단순한 경제주의적인 요구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내문제와 정치투쟁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대학의 민주주의적 변화·발전과 대학내 문제의 교육적인 본질을 해결할 사회민주주의는 어떠한 자전적 바뀌와 같이 굴러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중 복지회관 건립은 학생자치와 특별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의 충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었으나 누구의 문제라기보다 학교당국의 무성의한 반응과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요구투쟁의 부재가 지적될 수 있다. 92년까지의 완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준비·계획해야 하는가? 지금쯤은 구체적인 설계도, 예산, 그리고 부지의 확보가 있어야 하지만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은 없다.

반면 화사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문제, 즉 학내기구 또는 학교당국의 민주적인 방식의 해결이라는 공약은 나름대로 성과있게 진행됐다. 1학기초 예산편성심사 소위원회의 학교예산 심사와 이를 통한 등록금의 적정수준인상, 그리고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교양과목개편, 현재 진행중인 전공개편 교수추진회의 학생참여 등은 이후 대학발전위원회(학교와 학생 및 학내구성원의

자치·조정기구)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학자투에서도 대중사업의 목적의식적 관철과 대중의 주체적인 흐름을 필요로 하며, 과정상에서 하부단위 대중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해 중

고 아직 진척이 없는 경우 학생회의 책임을 물어서만은 안된다. 또한 음대, 체대, 의약계열 4개 단대들은 시설낙후, 실기실 및 기지재 부족은 학교에서도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재원문제 등으로 점진적인 해결을 제시하고 있어 매년 공약이 겹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단대발전 또는 복지문제의 개선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간부족의 해결과

교·아직 진척이 없는 경우 학생회의 책임을 물어서만은 안된다. 또한 음대, 체대, 의약계열 4개 단대들은 시설낙후, 실기실 및 기지재 부족은 학교에서도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재원문제 등으로 점진적인 해결을 제시하고 있어 매년 공약이 겹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단대발전 또는 복지문제의 개선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간부족의 해결과

교·아직 진척이 없는 경우 학생회의 책임을 물어서만은 안된다. 또한 음대, 체대, 의약계열 4개 단대들은 시설낙후, 실기실 및 기지재 부족은 학교에서도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재원문제 등으로 점진적인 해결을 제시하고 있어 매년 공약이 겹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단대발전 또는 복지문제의 개선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간부족의 해결과

교·아직 진척이 없는 경우 학생회의 책임을 물어서만은 안된다. 또한 음대, 체대, 의약계열 4개 단대들은 시설낙후, 실기실 및 기지재 부족은 학교에서도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재원문제 등으로 점진적인 해결을 제시하고 있어 매년 공약이 겹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단대발전 또는 복지문제의 개선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간부족의 해결과

교·아직 진척이 없는 경우 학생회의 책임을 물어서만은 안된다. 또한 음대, 체대, 의약계열 4개 단대들은 시설낙후, 실기실 및 기지재 부족은 학교에서도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재원문제 등으로 점진적인 해결을 제시하고 있어 매년 공약이 겹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단대발전 또는 복지문제의 개선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간부족의 해결과

교·아직 진척이 없는 경우 학생회의 책임을 물어서만은 안된다. 또한 음대, 체대, 의약계열 4개 단대들은 시설낙후, 실기실 및 기지재 부족은 학교에서도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재원문제 등으로 점진적인 해결을 제시하고 있어 매년 공약이 겹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단대발전 또는 복지문제의 개선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간부족의 해결과

교·아직 진척이 없는 경우 학생회의 책임을 물어서만은 안된다. 또한 음대, 체대, 의약계열 4개 단대들은 시설낙후, 실기실 및 기지재 부족은 학교에서도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재원문제 등으로 점진적인 해결을 제시하고 있어 매년 공약이 겹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단대발전 또는 복지문제의 개선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간부족의 해결과



임면권에 위협받는 대학교수

기획취재 — 대학과 교수제임용제도

교육민주화와 학원자유권을 저해하려는 현정권의 의도가 2 학기에 들면서 사립학교법의 대표적 독소조항 중의 하나인 '교수제임용제도'의 부활을 전제로 노골화될 조짐이다. 지난 1976년 3월부터 전국 각 대학을 상대로 실시된 '교수제임용제도'는 학내 진보적인 교수들의 교권을 제약하는 제도로 악명되어 왔으나, 87년 7월 이후 사회 전반에 불어온 민주화 바람으로 거의 사라져 버렸던 제도였다. 그러나 현 정권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민주화투쟁과 학원자유화투쟁에 일종의 위기를 느끼고 일부 사학재단과 유착하여 '교수제임용제도'의 부활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덕성여대 교학과 성낙돈(36, 교육학)교수는 지난달 25일 학교측으로부터 "21·23일 소집된 교수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동의가 부결되었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이 통보서는 성교수의 재임용 탈락사유를 알 수 없었다. 이는 "원래 인사관해당기관에 속해 있는 성원들에 대해 개별적 관련 문제이므로 비공개가 원칙이며, 따라서 그 결정 과정의 공개나 해명의 의무가 없는 것이 인사행정의 관행"이라는 학교측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적인 입장은 성교수탈락 사유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공정 인사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뒷날 평교수협의회가 알아낸 탈락사유는 총장실 난입사건 '가담, 학생시위 선동, 대학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의 파견근무가 불성실'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유 때문에 인사고과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고 결과적으로 '교수의 품위'에 문제가 있다는 명분으로 징역되었다는 것이다. 학교측에서 제시한 탈락사유에 대해서 성교수가 평소 '사립학교법의 민주적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위원회' 위원등 을 맡으며 교육민주화에 앞장서는 점으로

육정책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정부는 임시국회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들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이다'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종전 총학생회의 권원이었던 사립대학 교직원회 임면권을 재단측에 부여하고, 교수임

용제 폐지 대신 임용계약기간을 재단 측에 위임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매학기마다 재임용을 가능하게 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학위 정책간사, '민주화를 위한 평교수협의회' '대의협력부장'등을 맡으며 대내외적으로 민주화와 학원의 자율화에 분투한 '그들' 재단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임용 탈락시키지 않았던가.

이해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16일 정부는 사학자본과 결탁하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온 국민이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반민주적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호남대에서도 교육민주화와 관련해 정진숙(38, 가정관리학과)교수를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시켰으며, 상지대에서는 교수협의회 탈퇴자서 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수 12명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부산대학교의 경우 학생시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2명의 교수를 해임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악을 토대로 재단 측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성낙돈씨 등 재임용 탈락 교수 속출 사립학교법 재개정투쟁 본격화 될 듯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민주교육추진협의회'에서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성교수 재임용탈락 사태는 반민주적이고 파행적인 사학재단이 문교당국 및 독재권력과 합세하여 대 학교권을 탄압하는 책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며, 문교부의 배후조종을 받아 민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과 학원을 실천에 옮기려는 교수들을 탄압하여 교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명백관화해 드러냈다.'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교수제임용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교육단체들의 사립학교법 재개정투쟁등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성 記者〉

학생회사업의 아킬레스건

◇ 양캠퍼스 학생회 공약사업평가

양캠퍼스 22대 학생회가 각각 1학기 사업을 평가하고 2학기 사업을 펼치기에 부산하다. 개강이후 1개월여동안 평가작업은 어느정도 마무리된 지금 관련 음바라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단위사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했던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학생회 사업들을 평가하면서 22대 학생회가 정리되는 시점인 지금 그들의 공약과 실천사업의 내용을 평가·정리하여 이후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22대 총학생회의 지난해 선거공약은 투쟁사업과 학내복지사업, 학원자유화사업으로 나뉜다. 우선 투쟁사업을 보면 5.9인 자당분배투쟁과 방중 범민족대회 개최투쟁을 통해 민자당의 반민중성과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열기를 표출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1학기말 학교 부근에 있는 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지원투쟁등은 공약사업중 노학연대의 차원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아 지지한 지난 학기말교사투쟁으로 인해, 학내대중들과 좀더 많은 공유를 못했다는 것이 그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민족대회 참가투쟁은 바로 전의 용성출현 통일학교 개최를 계기로 하여 범민족대회 참가투쟁을 벌인 것은 성공적이었

으나 통일학교 자체의 진행 즉 분임토의의 강하라는 목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학교를 끝내고 나오는 도중 일어났던 이기현(사회대 9월 20일 동맹휴업을 필두로 내각 재개한 지지투쟁, 민자당 일당국회 분배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학원자유화사업과 학내복

살펴보면 지난 겨울방학 부서의 점거농성을 통해 교양교과 개편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나 학생대중들의 인식부족과 중앙 조직단의 사업으로 인하여 그 성과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하계방학을 기점으로 교수공제와 전공교과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각 전공교과실위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는 골간

조직강화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상반기 학내사업은 기층 골간 조직의 부재로 교양교과개편에서 획득한 성과물들을 원활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내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인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생활협동조합건설, 교통문제해

결, 학내복지사업등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발전사업을 위해 학생들은 지난 동계방학 동안 임대차 계약을 실시하여 복지기구 정립에 주력했으며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수단 노선의 연장고 지하철 유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초통 고속버스의 교내까지 연장운행 및 지하철노선 유치를 위한 대학지역 캠퍼스 복지 연합등의 활동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것 외에 주목해야 될 것은 올 상반기의 등록금인상 조정을 계기로 대두된 예산편성위원회(이하:예산위)의 활동이다. 예편위는 학교측과의 등록금인상폭 협상에서 각 단대별로 선거공약을 내걸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인 △공대 산학연계소 필요성제시 △자연대 야외휴식공간 관련및 조정사업 △사회관 옥상 동아리방 설치 △산학대학 중측 △산학협동중점실 △대학본부의 단계적 이전 △외대 동쪽 원형강 의실을 학생자치 활동장소로의 변경 △공대과 체대사이의 계단 설치 △과학회장과 과대표까지 장학금지급 등을 등록금 협상을 통해 학교측으로부터 시행해졌다는 확실한 대답을 받아

아밤에 따라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단대 공약사업중 부족한 공간의 확보는 오는 10월 학생회관이 완공되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우 記者〉

"자랑스런 조상, 자랑스런 후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우리 조상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청주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북(復)"이라는 활자가 증명하고 있는 인류최초의 금속활자는 독일의 "쿠틀베르크"보다 200여년 이상이나 앞선것으로 12세기경부터 우리조상들의 금속타는 기술이 뛰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기 1.1cm x 1.0cm의 조그마한 활자하나에서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지혜를 보며 그 지혜를 더욱 알고 빛나는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아연 제련회사 - 고려아연(주)

고려아연(주)은 세계 10대 아연제련회사로서 아연, 은, 금, 동은 물론, 고순도 정밀화학제품에 이르기까지 주요 기간 산업소재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종합비철금속 회사입니다.

설립 1974년, 전사원수 1,000여명, 90년 매출액 3,000억원의 고려아연(주)은 파란만장 투쟁과 세계 유명제련회사들과 신기술교류 및 업무제휴를 통해 세계적인 핵심제련회사로 성장했습니다.

'90년 8월 기업 공개를 단행, 2000년대 도약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아연(주)은 아연제련, 연제련, 열병합발전설비를 단일제련소내에 갖춘 최첨단 생산시스템을 구축,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생산설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회사, 궁지와 자부심으로 충만한 회사, 고려아연(주)가 세계와 어깨를 맞대고 나아갑니다.

고려아연 주식회사
Korea Zinc Company, Ltd.
서울·강남구 논현동 142번지 (영풍빌딩)